

ZOOM
-IN글로벌 금융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약화 흐름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대형 금융기업들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는 양상
- 이러한 글로벌 대형 금융기업들의 동시다발적 이탈 흐름은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가입의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의 직간접적 압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측이 지배적
- 글로벌 대형 금융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역할 축소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려는 세계적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 글로벌 금융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기조 변화에 국내에서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실질적인 대응의 시급성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촉구¹⁾
 -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에서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Net Zero Emissions)을 달성해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
 -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한 중간목표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기준년도(국별로 상이) 대비 40~55% 수준으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감축 노력을 강화
- 금융업계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중대한 재무적 사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경영활동과 더불어 탄소배출량을 공시하거나 탄소감축을 위한 서약에 동참하는 기업이 증가하였고, 국제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가입 규모 또한 급성장
 - UN 산하 연합인 ‘탄소중립 은행 연합(Net Zero Banking Alliance: NZBA)’은 2050년까지 금융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지침 제공을 목표로 2021년 4월 출범하였으며, 2025년 3월 기준 전 세계 44개국의 134개 은행이 회원사로 가입

1) 한국은행-기후변화와 한국은행(<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1257>).

- ‘넷제로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Net Zero Asset Managers Initiative: NZAMI)’는 UN 주도로 2020년 12월에 출범한 자산운용사들의 협의체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지지
 - 2025년 1월 기준 325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운용하는 총자산은 57.5조달러에 달함

□ 그러나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내 금융기업들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탈퇴 움직임이 확산

-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한 달 동안 미국 주요 대형 은행들이 NZBA에서 연속적으로 이탈²⁾
 - 2024년 12월 6일 골드만삭스를 필두로 웰스파고(12월 20일), 씨티그룹(12월 31일),뱅크오브아메리카(12월 31일), 모건스탠리(2025년 1월 2일), JP모건체이스(1월 7일) 등이 순차적으로 NZBA 탈퇴를 공식화
- 2025년 1월 9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NZAMI에서 탈퇴³⁾
 - ‘기후 리스크는 투자 리스크’라는 견해를 밝히며,⁴⁾ 기후변화가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중요한 리스크로 부상했다고 강조하던 블랙록의 방향 전환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미 연준) 또한 1월 17일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감독기구 간 협의체(Network of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NGFS)’ 탈퇴를 발표하며 기후 위험 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반영

- NGFS는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해 2017년 12월 설립된 협의체로서 2024년 12월 기준 90개국의 144개 회원기관 및 21개 국제기구 등이 참여
- 미 연준 이사회는 “NGFS의 업무 범위가 점점 확대돼 연준의 법적 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게 됐다”며 탈퇴 이유를 설명⁵⁾
- 또한 미 연준은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등 대형 은행에게 그동안 요구하던 기후 대응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 제출을 더 이상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⁶⁾

2) Yahoo Finance, 2025. 1. 23, The six largest US banks quit the Net Zero Banking Alliance.

3) Reuters, 2025. 1. 10, BlackRock quits climate group as Wall Street lowers environmental profile.

4) BlackRock, 2020. 1, A Fundamental Reshaping of Finance.

5) FED, 2025. 1. 17, Federal Reserve Board announces it has withdrawn from the Network of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NGFS).

6) Markets Insider, 2025. 2. 6, Fed ending bank climate stress test program, Bloomberg reports.

□ 미국에 이어 캐나다, 호주, 유럽, 일본의 금융기업들도 국제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를 탈퇴하거나 탈퇴를 검토

- 2025년 1월 TD은행, 몬트리올은행, 캐나다국립은행, 캐나다임페리얼상업은행, 스코샤은행 등 캐나다 5대 은행이 NZBA 탈퇴 대열에 합류하였고, 2월 호주 맥쿼리그룹이 NZBA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유럽 최대 은행들 또한 NZBA 탈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⁷⁾
- 3월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SMFG)이 NZBA에서 탈퇴를 결정하였으며, 일본 주요 은행 중 하나인 노무라 홀딩스도 탈퇴를 고려⁸⁾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 대형 은행들은 NZBA 잔류 의지를 표명⁹⁾한 바 있으나 일본에서 첫 탈퇴 사례가 나오면서 향후 아시아 금융기관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이탈 가능성이 확대

□ 이러한 글로벌 금융기업들의 동시다발적 국제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이탈 흐름은 연합 가입의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의 직간접적 압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측이 지배적

- NZBA 회원 은행들이 넷제로 달성을 자체적으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 탄소감축을 부풀리는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마케팅)을 시도한다는 지적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참여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¹⁰⁾
-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및 환경 관련 공약,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금융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활동 재검토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생산 증대, 에너지·환경 규제 완화, 그린뉴딜 정책 폐지 등을 공약했고, 취임 당일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대형 은행들의 NZBA 탈퇴 행보는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에 따라 증가하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¹¹⁾
- 미 공화당은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에 가입한 기업들을 두고 반독점법 및 공정경쟁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연합 활동을 ‘기후 카르텔’이라고 비판
 - 공화당은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금융기업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거나 경고 서한을 보내는 등 반(反) ESG 캠페인을 펼쳐왔으며, 2024년 12월 공화당 주도 주정부 11곳이 세계 3대 자산운용사(블랙록·벡가드·스테이트스트리트)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¹²⁾

7) Reuters, 2025. 1. 18, Top Canadian banks quit global climate coalition ahead of Trump inauguration.
Reuters, 2025. 2. 11, Australia's Macquarie joins major banks in exiting global climate coalition.
Financial Times, 2025. 1. 19, Europe's banks rethink climate collaboration as alliances struggle ahead of Davos.

8) The Japan Times, 2025. 3. 4, Japan's SMFG joins Wall Street in exiting net zero banking group.

9) The Business Times, 2025. 2. 19, Asia banks stick with net-zero group that Wall Street abandoned.

10) 국제금융센터, 2025. 1. 21, 최근 미국 대형은행들의 NZBA 탈퇴 배경 및 시사점.

11) The Straits Times, 2025. 1. 5, Wall Street's top banks abandon once-popular climate alliance as political pressure mounts.

12) 그리니엄 인텔리전스, 2025. 1. 6, 트럼프 2기 행정부 앞두고 기후목표 후퇴 가시화.

-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금융기업과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가 ‘기후 카르텔’을 형성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¹³⁾

□ 글로벌 대형 금융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역할 축소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려는 세계적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 금융기업이 포트폴리오 배출량을 파리 협약의 1.5℃ 목표에 맞춘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¹⁴⁾
-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를 탈퇴한 대부분의 금융기업들은 탈퇴 이후에도 기후 목표 이행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러한 연합 이탈 행렬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는 글로벌 노력에 큰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
 - 일례로 NZAMI는 블랙록이 협의체를 탈퇴한 후 성명을 통해 “최근 미국 내 상황과 지역별 규제와 고객의 기대치가 달라짐에 따라 새로운 글로벌 맥락에서 NZAMI가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히며 활동 중단을 선언¹⁵⁾
- 기후변화 대응 활동은 법적 구속력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전제하는데 대형 금융기업들의 연이은 연합 탈퇴는 다른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의지 상실로 이어질 소지
- 대형 금융기업들이 기후 위기 관련 정책 기조를 전환해 투자를 통한 고탄소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경우 단순히 해당 회사의 정책 변화로 끝나지 않고 글로벌 금융권과 환경 정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글로벌 금융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기조 변화에 국내에서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2025년 3월 현재 NZBA에 가입한 국내 금융사는 하나금융그룹, IBK기업은행, JB금융그룹, KB금융그룹, NH농협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등 7개사(3/12 조회 기준)

선임연구원 장효미

13) House Judiciary Committee, 2024. 12. 13, Sustainability Shakedown: How a Climate Cartel of Money Managers Colluded to Take Over the Board of America's Largest Energy Company.

14) Deloitte, 2024. 10. 22, 금융기관의 넷제로 달성을 위한 도전 과제 분석.

15) NZAMI, 2025. 1. 13, Update from the Net Zero Asset Managers initiative.